# ‘5만전력’ 효과… 지역 상장사 시총 17.8% ‘껑충’

## 전월비 6조5889억↑ ‘43조5947억’…한전만 6조3875억
## 거래대금 7.5% 증가…금호타이어 증가율 24.2% 1위

국내 증시가 훈풍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 광주·전남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이 전월 대비 6조5889억원 늘며 1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년 만에 5만원선을 넘은 한국전력이 지역 상장사의 시총 증가를 견인했다. 금호타이어와 한전KPS도 유가증권시장 시총 증가액 상위 3개 종목에 이름을 올리며 힘을 보탰다.

9일 한국거래소 광주혁신성장센터가 내놓은 ‘2025년 11월 광주·전남지역 상장법인 증시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지역 내 상장법인(38개사)의 시가총액은 전월 대비 17.8%(6조5889억원) 증가한 43조5947억원으로 집계됐다.

코스피 16개사의 시총은 전월 대비 18.9%(6조6273억원) 증가한 41조6943억원이었다. 한국전력의 시총이 전월 대비 6조3875억원 증가한 게 영향을 미쳤다.

특히 지난달 초 4만5100원이었던 한국전력은 꾸준히 우상향 그래프를 그렸고, 지난달 25일 5만1500원에 장을 마감하며 9년 만에 종가 기준 5만원선을 넘어섰다. 이후 지난달 27일 장중 5만4100원을 기록하며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고, 종가 기준 5만2500원에 11월을 마치며 지역 상장사 시총을 끌어올렸다.

**전체 및 지역 상장법인의 시가총액 현황** (단위:억원, %)

| 구 분 | 전 체 | 지역별 | | |
|---|---|---|---|---|
| | | 광주 | 전남 | 합계 |
| 2025년 10월말 | 38.517.542 | 29.105 | 340.953 | 370.058 |
| 2025년 11월말 | 37.133.882 | 31.483 | 404.464 | 435.947 |
| 변동액(률) | △1.383.660(△3.6) | 2.378(8.2) | 63.511(18.6) | 65.889(17.8) |

한전의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것은 전력구입단가 하락과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친원전’ 바람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전은 지난달 13일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5조651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4%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연료 가격 안정과 요금조정, 자구노력 등의 영향으로 2023년 3분기를 기점으로 9분기 연속 연결 기준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한 것이다. 4분기에도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전망도 일며 주가에 영향을 끼쳤다.

이와 함께 원전 사업의 기대감도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한전이 정부의 정상회담에 힘입어 UAE, 튀르키예와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국이 원자력 산업을 키우고 있다는 점도 호재다. 핵심 파트너로 한국이 거론되는 가운데 향후 한국전력과 한전KPS 등 자회사가 미국 대형 원전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며 주가를 부양한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 상장 22개사의 시가총액은 전월 대비 2.0%(384억원) 감소한 1조9004억원이었다.

지역 내 상장법인 38개사의 시가 총액 비중은 국내 전체의 1.2%로 전월보다 0.2%p 늘었다.

광주·전남 투자자의 거래대금은 전월 대비 7.5%(3665억원) 증가한 5조2291억원에 달했다. 시장별로 코스피는 3조5925억원으로 전월 대비 5.9% 늘었다. 코스닥은 1조6365억원으로 11.3% 증가했다.

지난달 기준 코스피 사장법인의 시가총액 증가액 상위 3개 종목은 한국전력 33조7031억원(6조3875억원↑), 금호타이어 1조6833억원(3275억원↑), 한전KPS 2조3985억원(1170억원↑) 순이었다.

코스닥은 박셀바이오 2419억원(258억원↑), 그린생명과학 719억원(102억원↑), 에이전트AI 515억원(96억원↑) 순으로 확인됐다. 시가총액 증가율 상위 3개 종목의 경우 코스피는 금호타이어(24.2%), 한국전력(23.4%), 다스코(16.6%)였고, 코스닥은 에이전트AI(23.0%), 그린생명과학(16.5%), 박셀바이오(11.9%) 순으로 나타났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구강용품 초음파·UV 살균세척기 개발 ㈜에코잇**

# “국내외 크라우드 펀딩 성공…세계시장 공략”

### 3종 유해균 99.9% 살균…국내 유통 제품 중 최소 사이즈
### 동강대 BI센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서 역량 UP

“20년 전 제가 교정기를 착용했을 때나, 2년 전 동생이 교정 치료를 받았을 때나 위생 관련 제품이 거의 달라진 게 없더라구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생활 위생기기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에코잇의 조인성 대표.

조 대표는 지난 2023년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졸업한 그 해 11월 구강용품 전용 초음파 UV살균 세척기인 ‘CLNEE’ 시제품을 출시하고, 국내 크라우드펀딩을 추진했다. 세계 여성발명 EXPO 금상과 한국무역협회장상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을 갖고 있는 그는 시제품의 기술력과 시장 확장 가능성에 주목했다. 이를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유통 전략으로 도입했고, 지난 2년 동안 5회 연속 성공적인 결과물로 시장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입증했다.

이 같은 성과는 조 대표가 펀딩을 진행할 때마다 부족했던 점을 개선해가며 고객들에게 쌓은 신뢰가 든든한 원동력이 됐다.

조 대표는 “우리 제품은 소비자, 특히 사용 경험이 있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공감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CLNEE’ 제품은 KC 인증, 특허 출원과 디자인 등록까지 마치며 경쟁력을 확보했다. 시험을 통해 대장균·황색포도균·뮤탄스균 등 3종 유해균의 99.9% 살균력도 검증받았다. 초음파 세척과 UV 살균이 동시 가능한 소형 세척기로 ‘CLNEE’의 장점은 국내 유통제품 가운데 부피와 크기가 가장 작다는 점이다.

또 교정장치, 마우스피스, 틀니, 아기 젖꼭지 등 구강 위생 제품을 세척하기 알맞은 케이스형 디자인으로 개발해 휴대하기 쉽고 원터치 조작으로 사용이 간편하다.

조인성 대표

㈜에코잇 제품은 해외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올해 일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마쿠아케(Makuake)에 진출해 목표 대비 4300%를 달성하며 누적 5000만원 이상의 성과를 달성했다.

앞으로 미국과 유럽, 호주 등 본격적인 글로벌 진출을 추진하고 배터리 내장 제 제품이나 치과에 납품하기 위한 완성도 높은 제품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입주기업인 ㈜에코잇은 동강대 창업보육(BI) 센터가 지원하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특화 사업(생활혁신 ENJOY Program in 광주)’에 참여하고 있다.

조 대표는 “지스트 입주기업이지만 동강대 BI센터를 비롯한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술 검증과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업 경쟁력을 더욱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

# 광주경총, 경제전문가 곽수종 박사 초청 포럼

### 12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내년 국내외 경제 전망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는 오는 12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경제전문가 곽수종 박사를 초청해 ‘2026년 이후 세계 및 한국 경제 대전망’을 주제로 2025년을 마무리하는 제1707회 금요조찬 포럼 특강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곽 박사는 리엔경제연구소 대표로, 조지 메이슨 대학교 경제학 교수와 선문대학교 국제경제학 교수를 역임했고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 수석연구원을 지냈다. 현재 연합뉴스경제TV ‘곽수종의 경제프리즘’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경제대전망 2026~2030’과 ‘달러 종말의 허구’, ‘곽수종 박사의 경제대예측’ 등이 있다.

강연은 △지정학(트럼프, 시진핑, 푸틴) △거품경제의 결말 △거품붕괴 △통화정책의 실수 △유동성 함정 △신용 경색 △디플레이션 △재정 부양의 실패 △시장 심리 △비빌 언덕 △한국경제의 생존전략 △네 가지 주요 시장 변화 △새로운 리더십 내용으로 진행된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올해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자동차, 철강 등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새 정부 들어 그나마 안정세에 접어들어 다행이다”며 “이번 포럼에서는 다시 뛰는 2026년의 세계 및 국내 경제 전망을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경총은 현재 876개 회원사가 활동하고 있고 국내 최장수 조찬 포럼을 진행하고 있는 민간 경제단체다. 저명인사 및 최고 전문가를 초빙해 CEO와 지역 노사민정, 오피니언 리더 등을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 실시하고 있다. 내년 1월 2일에는 10개 경제단체 및 기관 2000여명이 떡국 나눔행사 공동 신년인사회 개최로 인해 1708회 금요조찬 포럼을 1월 9일 개최한다. 송대웅 기자 sdw0918@

**국가데이터처 2025년 2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

# 전남 인구감소지역 체류인구 333만명

### 등록인구 4.8배…11.4 체류시간
### 주요 방문지 담양·화순·곡성군

올해 2분기 전남 인구감소지역의 체류인구는 333만1000명으로 등록인구의 4.8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2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에 따르면 전남 인구감소지역 16개 시·군·구의 생활인구는 총 403만1000명으로, 이 가운데 실제 머문 체류인구는 333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남은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가 4.8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평균(5.5배)에는 다소 못 미쳤지만, 여전히 높은 체류 비중을 보였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실제 생활·활동이 이뤄지는 지역을 기준 삼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통근·통학·관광·업무 등 정기적으로 머무는 이들까지 포괄해 산정하는 새로운 인구 개념이다.

2분기 전남 인구감소지역 평균 체류일수는 3.1일, 평균 체류시간은 11.4시간, 평균 숙박일수는 3.8일이었다. 타 시·도 거주자가 전남을 찾은 비중은 73.3%, 재방문율은 35.1%였으며, 방문객 1인당 평균 카드 사용 금액은 11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체류인구가 가장 많이 찾은 지역은 담양군 담양읍, 화순군 화순읍, 곡성군 오곡면, 영암군 삼호읍 등이었다. 외국인 체류인구(5월 기준)는 6만7000명으로 타 시·도 대비 많은 편이며, 이들의 평균 체류일수는 5.0일, 체류시간은 14.2시간으로 외국인 평균(체류일수 4.2일·체류시간 13.6시간)을 웃돌았다.

업종별 인당 평균 카드 사용액(5월 기준)은 보건·의료가 18만3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개인서비스 10만8000원, 운송·교통 10만7000원, 문화·여가 9만9000원 순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 카드 사용액 비중은 50대가 33.4%로 가장 컸으며, 60세 이상 29.7%, 40대 22.1%가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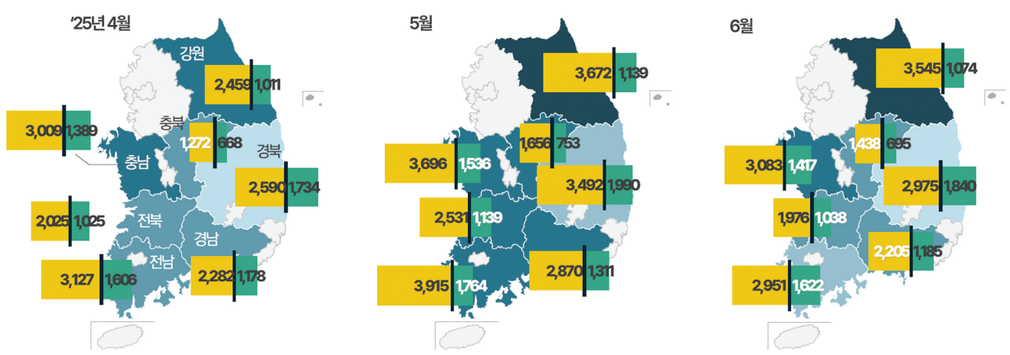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카드 사용액 비중은 5월 39.6%, 4월 37.3%, 6월 35.7%로 전체 소비 활동에서도 체류인구가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별 주요 특성 등 보다 자세한 생활인구 자료는 ‘국가데이터처 빅데이터활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 2분기 전국 인구감소지역 전체 생활인구는 3137만명으로 역대 2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유출인구 대비 유입인구** (단위:1000명) 최소 1.4 최대 3.3 배수 = 유입인구 / 유출인구



동신대학교와 하나은행은 최근 동신대 대정도서관 3층 노마드2실에서 발전기금 기부 협약식을 개최했다.

# 하나은행, 지역인재 육성·교육 발전 힘 보태

### 동신대에 5000만원 기부

하나은행이 지역 인재 양성과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동신대학교에 발전기금 5000만원을 기부했다.

동신대학교와 하나은행은 최근 동신대 대정도서관 3층 노마드2실에서 발전기금 기부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주희 동신대 총장, 이형석 해인학원 상임이사, 송경용 대외협력 부총장과 하나은행 우승구 부행장(호남영업그룹 대표), 구희열 광주지점장, 정준영 나주빛가람지점장, 심석진 호남영업추진부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하나은행은 지역 인재 양성, 금융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과 함께 발전기금 5000만원을 동신대에 전달했다.

협약을 계기로 하나은행은 대학 구성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금융상품 활용법과 국내외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동신대는 재학생 국제학생증 발급 등 금융업무에 협력한다.

나주=조함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